

##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이미지

박정실 · 하지수<sup>†</sup>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Female Image of the Third wave Feminism in Fashion Photographs

Jeongsil Park and Jisoo Ha<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It analyzes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wave feminism revealed in the fashion photographs and examines the feminine image affected by the third wave feminism. For the research purposes, bot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were conducted together. Through the analysis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photograph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wave feminism, the followings are definitions of the feminine image affected by the third wave feminism. First, as the 'Female image with sexual freedom', it escapes from the passive viewpoint and expresses liberation and rights of women as the subject of the power rather than subordination using sexuality of women actively. Second, as the 'Female image with multiple aspects', it pursues an independent and strong image, challenges and threatens the man power. Third, as the 'Multicultural female image', it reduces a gap among colored races and many other cultures, seeks after rights and freedom independently escaping from the dual oppression. Fourth, as the 'Queer female image', it disorganizes dichotomous gender identity actively and pursues diverse gender identities. So, it shows that the third wave feminism expressed by the various media cultures influences the feminine image in a society at large creating a new image of a woman through exchanging and communicating with its recipients.

**Key words** : the third wave feminism(제 3세대 페미니즘), fashion photographs(패션사진), female image with sexual freedom(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미지), female image with multi-faceted(다면적인 여성이미지), multicultural female image(다문화적인 여성이미지), queer female image(퀴어 여성이미지)

## 1. 서 론

페미니즘 이론은 약 100여년의 시간동안 변형되고 재정립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이끌어 냈으며,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여성이미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세 세대로 나누어 설명이 되는데 1840년부터 1920년까지의 제1세대 페미니즘은 참정권과 노동 권익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며 양성간의 평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 졌고, 제2세대 페미니즘은 가장 많이 전파되고 알려진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시기의 운동이며 여성들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며 남성들과 생물학적·사회학적으로 다른 차이를 강조하는 이질론(Cho, 2006)이 대두된다. 이는 다시 사회 이념과 인식에 따라 변화하면서 20세기말에 와서는 '여성'이라는 추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인종·국적·민족·종교·문화적 배경 등 정체성 차이에 주목한다. 이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여성들의 삶과 경험이 지니는 특수성에 대해 성찰하려는 노력들

로(Tong, 2009) 이를 제 3세대 페미니즘(Third Wave Feminism)이라고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에 주목하면서 코르셋의 폐지, 바지의 착용과 같은 행위로써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구현하였다. 패션과 마찬가지로 패션사진도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상미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여성이미지는 패션사진을 통해 시대적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패션사진은 한시대의 사회적 이념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패션사진에 페미니즘에 관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연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 3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객체로 간주하여 그 차이점에 집중한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기존의 페미니즘 패션분야 연구들은 세대별 구분이 없거나 제 3세대 페미니즘을 다루었지만 단편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Chon(2011)과 Tea(1999)는 퀴어 이론과 흑인여성이론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Lee(2005a)와 Kim(2011)는 패션에 나타난 레즈비언 페미니즘과 사이버 페미니즘을 관찰하였으며, Sin(1997)은 다원주의적·해체주의적·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성논리에 대한 복식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는 제 3세대 페미니즘의

<sup>†</sup>Corresponding author; Jisoo Ha  
Tel. +82-2-880-1453, Fax. +82-2-875-8358  
E-mail: jisooaha@snu.ac.kr

포괄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제 3세대 페미니즘 이론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정리하며 특성을 분석하여 제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의 이미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따라서 남성이 주체가 되고 남성에게 의해 해석되고 만들어졌던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자세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다양한 여성상을 제시하며, 현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발판을 제공하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페미니즘과 패션사진의 이론적 고찰

### 2.1. 제 3세대 페미니즘의 이론적 고찰

Tong(2009)에 의하면 페미니즘 이론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이론 내지 관점이며, 각각의 이론 내지 관점은 여성의 억압 상태를 묘사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며 여성해방을 위해 미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주장하는 이론가마다 다르게 정의되며 시대적으로 사회에 공론된 이론들이 접목되면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받는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며 여성해방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1792년 Wollstonecraft에 의해 『여성 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라는 선언서를 통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사회, 교육, 법, 제도 등 공적인 자리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한 이론을 제 1세대 페미니즘으로 구분하며,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Lee, 2005)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Marx Feminism)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 1세대 페미니즘은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평등만 추구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사회구조 안에서의 여성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결여된 채 소수의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대중화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 1세대 페미니즘이 공적인 자리에서의 평등을 추구했던 운동이었다면,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의 사적인 부분인 생물학적 특수성 즉, 출산, 섹슈얼리티, 성, 문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남성보다 결코 열등한 성이 아님을 확립해갔다. 1945년 Beauvoir가 『제 2의 성(The Second Sex)』을 출판하면서부터 시작된(Lorber, 2001/2005) 제 2세대 페미니즘은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론에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등이 있다.

제 2세대 페미니즘은 평등만을 추구했던 제 1세대 페미니즘보다 다원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계층과의 현실적 거리감과 그들과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제 3세대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198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백인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이분법적인 대립에 도전하는 주류에서 벗어난 페미니즘이며 Lorber, 2001/2005) 인종·국적·민족·종교·문화적 배경 등 정체성 차이에 주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변화를 포용하고(Tong, 2009),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인 여성들의 삶과 경험이 지니는 특수성에 대해 성찰 하려는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시도되었다.

제 3세대 페미니즘의 주요 쟁점은 2세대 페미니즘 이론연구에서 여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성들이며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객체로 간주하여 그 차이점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대한 연구들에는 퀴어 이론, 인종차별의 철폐, 반 식민주의, 개인주의, 트랜스젠더 정치, 여성의 파워, 에코 등이 포함된다.

### 2.2. 제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

문헌연구결과 제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1. 여성성의 다면화

세기말을 맞아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대두되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해체되면서 기존의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일한 여성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는데 Foucault 등은 탈구조주의 해체론적 사고가 필요하며 다원적 차이와 균열의 시각으로 다면적인 체계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여성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많은 페미니즘 이론들이 제기되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성적표현의 긍정적인 접근

페미니즘은 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성적 표현의 해방을 지향하고 자유롭게 본능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담론화하였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페미니즘은 파워 페미니즘(Power Feminism), 포르노그래피 페미니즘(Pornography Feminism), 개인주의적 페미니즘(Individual Feminism) 등을 들 수 있다.

파워 페미니즘은 1990년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모든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과 권력, 성적 공격성은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권리 획득을 위한 지적 능력, 경제력, 성적 매력 등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용하라고 하였다(Bang, 2001).

여성이 성적대상으로 취급되고 상품화 되어지는 포르노그래피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공격받았지만, 포르노그래피 페미니즘을 주장한 Wendy McElroy는 성적표현은 인간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으로 여성의 표현에 대한 억압은 정치적 특성을 띤 국가의 법이지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에 따른 다양함을 강조하고 주체적인 존재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정숙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제기하고 성 정체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

의 자유를 지향하도록 주장하였다.

## (2) 단일한 여성성의 폐지

Millett(2000/2009)는 오랫동안 가부장제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이항대립의 관계로 이해해왔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약하며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성역할의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억압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계급과 질서의 부재를 주장하는 아나키스트(Anarchist)들과 독립적인 철학을 내세운 DIY이론의 영향을 받아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연약한 여성성을 타파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수용하였다.

페미니즘은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는 아나키즘의 융합으로 아나카 페미니즘(Anarcha Feminism)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으로 권위주의적인 조직과 계급의 모든 형태에 대해 반대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화 획책들을 깨부수고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행동들을 추구하며 사회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닌 변화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고, 사회체제에 대한 파업, 집회, 데모를 통하여서 강하고 직접적으로 반항하였다.

DIY 페미니즘(DIY Feminism)은 잡지, 음반, 라디오 등 문화적인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장되었고 인터넷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전파시켰다.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자이며,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을 통해 주류로의 통합을 거부하고 반항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을 반영한다(Kim, 2003).

아나카 페미니즘과 DIY 페미니즘은 급진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여성해방을 추구하고 남성지배계급에 대한 분노와 억압을 호소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다면적인 여성성을 추구한다.

## 2.2.2. 지역·문화의 다양화

페미니즘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등장하면서 여성의 권리쟁취는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삶의 질도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배계급 여성들만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고 여전히 역사적, 계급적, 인종적 편향을 갖는 여성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성범주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해당되는 이론은 제 3세계 페미니즘, 흑인 페미니즘, 글로벌 페미니즘, 다문화 페미니즘 등이 있다.

제 3세계 페미니즘(Third World Feminism)과 흑인 페미니즘(Black Feminism)은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백인우월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유색인종과 서구지역 이외 지역의 여성들이 이중적인 억압과 지배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관점보다 사회 정체성의 관점으로 민족과 인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글로벌 페미니즘(Global Feminism)은 세계화에 중심으로 일 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다양성, 자유와 평등을 인지하고 북·서구와 남·동구 담론을 관통하여 넘어서는 페미니즘이다(Hooks, 2000/2002). 다문화 페미니즘(Multi-cultural feminism)도 글로벌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문화적 다

양성을 핵심으로 모든 지역의 문화그룹들은 평등한 대우와 존중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다(Lee, 2005).

이와 같이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과 연결된 지역·문화적인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다양성과 차이로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여 그들의 주체성에 대해 다문화적, 탈지역적, 탈 민족적 관점을 제시한다.

## 2.2.3. 성적 소수자의 수용

성소수자에 대한 일부 페미니즘 이론은 '퀴어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는데, 퀴어 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애자, 성전환자, 복장 도착자, 가학/피학 성향 등 성 정체성 논의에서 도식적인 분류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총칭하며 더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한다(Tamagne, 2001/2007). 퀴어 이론은 페미니즘 이론과 혼합되어 병리현상으로 치부받았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억압에 관심을 가지면서 퀴어 페미니즘(Queer Feminism)과 레즈비언 페미니즘(Lesbian Feminism) 이론이 탄생시켰다.

Tamagne(2001/2007)는 1980년대에 퀴어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게이'와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레즈비언 단체들은 페미니즘과 힘을 합쳐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women-identified women)' 모든 여성들에게 참여를 허락하는 '레즈비언 네이션(Lesbian Nation)'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였다.

퀴어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등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성 정체성(Gender-identity)과 성적 정체성(Sexual-identity)을 재정의하고 성적 취향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능케 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성적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관찰하고 수용하였다.

제 3세대 페미니즘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과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 3.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여성이미지

### 3.1. 패션사진을 분석하는 틀

패션사진은 시대마다 그 당시의 패션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앞으로의 트렌드나 미적 느낌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되어 그 연구 가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패션사진을 용도에 따라 크게 브랜드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애드버타이징(Advertising) 패션사진과 사회적인 기호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에디토리얼(Editorial) 패션사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Hong, 1999)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해 애드버타이징 패션사진은 제외하고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으로만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문헌연구 결과 패션사진을 분석하기 위한 표현형식의 틀은

**Table 1.** Characteristics and key-words of the third wave feminism

Category	Feminism theory	Representative theorist	Key-word
Multi femininity	Power Feminism Pornography Feminism Individual Feminism	Wolf, N. Roiphe, K. Defeld, R.	Individualism/identity/ Enthusiastic/Authority/ Sexuality/ Free sexual expression
	Abolishing single femininity	Anarcha Feminism DIY Feminism	Opposes authority/ Absences of reign/ Independence/ Identity/Rage
Diversified locations-culture	Third World Feminism Black Feminism Gobal Feminism Multi-cultural feminism	Spivak, G. Loomba, A Suleri, S.	Puts people and ethnicity first/Establishes identities of colored races/Cultural diversity
Accepted sexual minors	Queer Feminism Lesbian Feminism	Butler, L.	Multiple identities/ Deconstruction of the Sexes Variable gender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3.1.1. 주제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은 주제(Theme), 컨셉(Concept), 크레딧라인(Credit Line), 사진(Photography) 등 네 가지로 구성이 되며(Hong, 1999), 이 구성요소 중 에디토리얼 사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주제(Theme)인 제목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컨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진작가의 의도와 여성성에 대한 작가만의 시각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3.1.2. 위치 · 자세 · 제스처

작가의 의도와 컨셉은 모델(피사체)의 포즈와 제스처, 표정과 의복 및 배경과 여러 소품을 통해 연출되는데, Goffman은 이를 표상(display)이라고 표현했다. 표상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행위자의 위치와 성별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구성원들 간의 계약의 조건을 형성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개인이 행할 관계의 방식이나 형태를 규정짓는다고 하였다(Nam, 2004).

Goffman에 따르면 몸을 낮추는 자세 및 몸을 굽히거나 머리를 숙이는 자세는 소극적이며 종속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는 독립성, 주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손을 이용한 제스처를 살펴보면 신의 몸이나 의자, 사물에 자연스럽게 손을 대는 섬세한 손동작은 여성적 터치로써 전통적인 여성성의 기질인 의존적이고 부드럽고 섬세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대조적으로 물건을 움켜잡거나 조정함은 강한 전통적 남성적 기질인 자아 확신적이고, 강력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것은 심리적인 도피이며, 현실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고 부적응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3.1.3. 시선

고대 그리스 회화에서는 여성상을 눈동자와 시선으로 표현

하기도 하였는데(Kim, 2004) Millet의 <에랑 기사>에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눈을 지그시 감는 모습을 하고 있다. Milo의 <비너스>조각상조차도 눈동자를 조각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성적이지 못한 표현으로서 ‘남성은 정신적인 것, 여성은 자연적인 것’이라는 사상과 동일하며, 여성의 수동적이고 이성에 의지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3.1.4. 외모 · 복식

패션사진에 있어서 모델의 외모와 복식은 패션사진의 전체적인 컨셉과 여성의 이미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chia-parelli(Caroline & Minna, 1989)는 여성의 패션을 다루는 이면에서 복식자체를 몸에 새겨진 문화적 언어라는 접근 방법으로 몸을 언어-상징의 영역에 끌어들이므로써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나친 장식성을 거부하여 단순성으로 엄격함과 주체성을 표현한 샤넬슈트(Chanel Suit)와 같이 패션사진에서 표현되는 모델의 복식은 사회 · 문화적 상징의 표현으로써 여성의 이미지표현에 기여를 한다.

위의 네 개의 시각에 근거하여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과 패션사진에 관련된 국내외 이론서, 단행본, 학위논문, 학회논문 등 문헌자료를 통해 페미니즘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변화의 흐름 및 패션사진의 구성과 사회 ·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고, 패션잡지 Vogue를 선정하여 ‘세계 3대 패션작가’로 불리고 있는 Peter Lindbergh, Paolo Roversi, Steven Meisel의 사진을 중심으로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작품을 수집하여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태리와 미국의 Vogue를 중심으로 세 명의 사진작가의 작품을 추출한 후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사진과 남성만 나온 사진을 제외한 결과 총 1538장이 선택되었다.



Fig. 1-1. 'In grande stile' by Steven Meisel. Vogue Italia. <https://www.myfdb.com>



Fig. 1-2. 'Too Shy Shy... Hush Hush' by Steven Meisel. <https://www.myfdb.com>



Fig. 1-3. 'Meiselpic' by Steven Meisel. <http://models.com>

선정된 1538장의 사진은 1차적으로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 내용 및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시한 후 페미니즘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게 타당성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의류학 전공 박사 3인과 석사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시한 사진 중에서 두 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중복된 선택을 받은 사진 84장이 선택되었고, 다음 2차적으로 검증을 거쳐 한 명의 전문가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진은 제외시켜 최종 81장의 사진이 선정되었다.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 표현특성에 근거하여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 3.2. 페미니즘 여성이미지

#### 3.2.1.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미지

81장의 사진 중 40퍼센트 비율을 차지하는 33장의 사진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춰 과감하게 노출되거나 의복을 통한 간접적인 노출, 관능적인 자세와 여성중심의 조직적 배열법 등으로 성적 표현의 주체로써 여성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여성 내면의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섹슈얼리티를 암시하였다.

작가의 표현의도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주제에서 작가는 'Grand stile'(Fig. 1-1)과 'Shy'(Fig. 1-2)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부와 권력, 대법한 여성에 반하는 수줍은 남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Meiselpic'(Fig. 1-3)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1인칭으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의 여성의 삶을 주제로 자유로운 여성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위치와 자세의 측면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중심에 배열되어 있었다. 여성이 상위에 위치하여 남성의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거나(Fig. 1-1), 여성이 사진의 중심에 배열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신체일부만 노출시키는(Fig. 1-2) 등 표현들로 남성보다 우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고 있다.

시선처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면에서, 혹은 더 강하게 렌즈를 응시하고 있으며(Fig. 1-1, 1-2), 섹슈얼한 본인의 모습을 셀프카메라(Self-Camera)로 즐기는 나르시즘적 시선처리(Fig. 1-3)로 성적으로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외모와 복식은 늘 여성이 남성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졌

다. 여성은 남성보다 메이크업과 의복의 구색이 완벽하였고, 나체인 남성 의복상태를 통해 성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하였으며(Fig. 1-1) 여성이 남성보다 화려한 악세사리와 화려한 색채(Fig. 1-2)로 주체성을 보여주었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속옷상태의 셀프카메라를 보여주는 설정을 통해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성(Fig. 1-3)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제 3세대 페미니즘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 섹슈얼리티의 표현은 성적인 희열을 갈구하는 음탕한 충동의 화신의 여성성에서 성적 권력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여성성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Billinghurst, 2004/2005). 따라서 처녀다운 여성은 좋은 것이고 요부다운 에로틱한 여성은 나쁘다는 구사회적 금기에 대해 도전하고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여 억압되었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권력으로 사용하는(Arnold, 2001)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3.2.2. 다면적인 여성이미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다면적인 여성이미지는 81장의 사진 중 24장이 해당되며, 여성 피사체의 당당한 포즈와 강력한 시선으로 성과 여성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해체되고 양성적인 이미지 혹은 무성의 괴기스러운 이미지로 여성의 독립적인 경험과 특성에서 비롯된 여성 내면의 욕구를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다면적인 여성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주제에서 'Alien', 'Rehab'(Fig. 2-1, 2-2) 등 단어로 기존의 작고 연약하여야만 했던 여성이미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여성이미지를 만들어 갔다.

위치와 자세, 제스처는 여성의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는데, 남성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여성이 중심에 위치하거나(Fig. 2-1), 성적인 자극을 주는 부위로 제거하는 것(Fig. 2-3)으로 표현하였다.

시선은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강하게 응시하는 주체적인 입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Fig. 2-1), 본인의 변하는 이미지를 응시하여(Fig. 2-3) 새로운 이미지의 갈구를 표현하였다.

다면적인 여성이미지는 외모와 복식에서 더 강하게 표현되었는데, 기존 여성의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미지가 아닌 더



**Fig. 2-1.** 'Pretty Alien' by Peter Lindbergh. <http://peter.lindbergh.free.fr>



**Fig. 2-2.** 'Three Women' by Steven Meisel. <https://www.myfdb.com>



**Fig. 2-3.** 'super mods enter rehab' by Steven Meisel. <http://www.artandcommerce.com>

럽고 추하면서 강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비에 젖은 여성, 동물,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헤어스타일 등 괴기스러운 복식은 기존여성의 이미지를 뒤엎기에 충분했다.

다면적인 여성이미지는 여성들의 다양한 특수성의 수용을 토대로 출발을 하였으며, 부드럽고 매끈하고 온화한 여성의 성적 체성을 해체시키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다양한 여성이미지를 보여주었다.

### 3.2.3.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다문화적인 여성이미지 분류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다면적 여성이미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절에서는 유색인종과 백인 이외의 타 민족에 초점을 맞춰 분류하여 여성성을 관찰 하고자 했다. 11장의 사진이 다문화적 여성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과 문화의 다양성은 제스처와 자세를 통해 자유 지향적인 이미지를 타나냈다.

그 동안 억압되었던 인종차별역사로 인해 소극적이고 나약하게 비춰졌던 유색인종과 오리엔탈리즘은 'Champagne'과 'Naomi Campbell'(Fig. 3-1, 2, 3) 등 단어로 즐거움과 환희, 또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강한 자리매김을 암시하면서 역설적으로 표현되었다.

위치와 자세는 주변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활동의 주체인 두 팔을 올려 춤추듯 자유와 즐거움을 암시하였고(Fig. 3-1) 두 팔을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설정을 통해(Fig. 3-2) 강인함을 표현하였다.

시선은 렌즈를 정면에서 응시한다거나(Fig. 3-2, 3-3) 시선의 회피가 아닌 흥에 취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눈을 감

는 모습(Fig. 3-1)으로 표현되었다.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분류에서는 유색인종과 오리엔탈리즘의 문화권 모델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화려한 장신구와 의복을 착용하여(Fig. 3-1, 3-2) 유색인종 여성의 자유로움과 주체성을 표현하였고, 반대로 상의 탈의한 채 가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자세까지 취함으로써(Fig. 3-3) 강인함과 위압감을 주었다.

오랫동안 서구사회를 지배하였던 이분법적 사상은 유색인종과 타 문화권에 대해서 우월함과 열등함, 정상과 비정상의 의미로 부정적인 향으로 이분화 시켰지만 제 3세대 페미니즘이 표현된 다문화적인 여성이미지에서는 주체성과 강인성의 복합적인 입장을 취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특수성으로 다문화적, 반 인종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 3.2.4. 퀴어 여성이미지

퀴어에 관한 3세대 페미니즘은 여성과 여성이 스킨십을 하거나 페티쉬적 취향의 의복을 등장시키는 등 13장의 사진이 여성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보편적인 이성애를 거부하고 모호하고 다형적인 새로운 젠더 정체성을 추구하였다.

퀴어 여성이미지로 분류된 사진들의 주제는 사진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선택되어 또 다른 상황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Serviced'라는 단어와 매치가 되지 않는 여성들간의 키스(Fig. 4-1), 'Poetic Mood'와 여성들간의 스킨십(Fig. 4-2) 등은 퀴어를 암시하였다.

퀴어 성향은 자세와 제스처에서 여과없이 전달되었다. 여성 들끼리 성적인 움직임 즉, 키스하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제스처로 동성애적 관계임을 표현하고 모호한 쾌락성을 동반한 전



**Fig. 3-1.** 'Champagne Fuen Mers' by Steven Meisel. <https://www.myfdb.com>



**Fig. 3-2.** 'Champagne Furs' by Steven Meisel. <https://www.myfdb.com>



**Fig. 3-3.** 'Naomi Campbell' by Peter Lindbergh. <http://peter.lindbergh.free.fr>



Fig. 4-1. 'Serviced' by Steven Meisel. <http://steven-meisel.tumblr.com>



Fig. 4-2. 'In a Poetic Mood' by Paolo Roversi. <https://www.myfdb.com>



Fig. 4-3. 'All Tomorrow's Parties' by Steven Meisel. <http://models.com>

통적인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위배한 새로운 시각의 섹슈얼리티를 제시하였다.

시선은 서로를 응시하거나(Fig. 4-1, 4-2), 렌즈를 응시하여 본인의 페티시적 모습을 당당하게 과시하였다(Fig. 4-3).

퀴어 여성이미지에서 여성들은 서로 같은 복식을 착용하여 객체 그룹화시켜 동질감을 표현하였고(Fig. 4-1) 여성들이 각각 남성과 여성의 기호 복식으로 정체성을 왜곡시켰으며(Fig. 4-2), 원뿔모양의 브래지어, 가죽이나 망사 등 소재의 의상을 리비도적 쾌락을 기호화한 페티시 이미지로 퇴폐성과 유희성을 동시에 드러냈다(Fig. 4-3).

이와 같이 3세대 페미니즘은 본질적인 여성성을 극대화 시

키거나 전통적인 여성성 해체로 여성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남성과의 평등 및 대립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주체적으로 이미지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재구성되었다. 또한 인종과, 지역,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그들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바탕으로 억압당하고 소외 받는 열등한 이미지에서 자유로운 이미지와 능동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여성'의 새로운 범주에 대한 지적은 동성애와 페티시, 그리고 각종 도착증으로 확대되고, 그에 대한 이미지도 공공매체를 통해 수면으로 떠올랐고 여성의 정체체성에 새롭게 정립되었다.

패션사진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의 표현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meaning of the third wave feminism shown in fashion photos

	External expression characteristics			Internal meaning	
	Theme	Appearance & garments	Location, gesture & posture		Gaze
Female image with sexual freedom	-Grande stile -Shy, Hush	-Contrast of splendid colors -Splendid Accessory -Exposure -Mesh stockings -Underwear	-The woman's body is located on the man's -The male is the background of the photo -Leans on the chair -Legs open	-Staring at the front	-Overturns passive female image -Breaking up a dichotomy between virtuous women and decadent women -Aims for female rights -Freedom from sexual oppression -Initiative, autonomy
Female image with multi-faceted	-Alien -Defiant vision -Three women	-Straightforward silhouette -Minimum trimmings -Futuristic clothes -Harmony of people and different object	-Legs open -Both arms on waist -Dignified walking -Powerful Posture -Active posture -Smokes -Standing still -Shaving all hair	-Staring intensely at the front -Staring each other	-Breaking up of traditional female image -Threatens men's leadership -Identity, abnormality, strength
Multicultural female image	-Champagne -Black Beauty -Naomi campbell	-Colored race -Oriental -Made of fur -Lingerie	-Raises both hands -Dancing -Lifts heavy object with ease -Standing still	-Staring at the front -Does not care about receiving attention of others	-Overthrowing historical inferiority of colored race and other culture. -Breaking up of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Respect woman's rights of other culture -Identity, freedom
Queer female image	-Serviced -Poetic Mood -Tomorrow's Parties	-Wearing the same clothes -Leather, plastic -Con type bra -Mesh stockings -Piercing	-Gesture that suggests of sexual acts like kiss -Physical contact like touching the face or leaning -Smoking	-Looking at the other person -Does not care about receiving attention of others	-Overturns old concept of gender -Pursues sexual liberty -Activeness, identity, identity

## 4. 결 론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현대에 와서는 패션사진을 통해서 여성성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패션사진은 패션상품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의 혼재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모델의 시선, 제스처, 자세, 위치, 배경 및 모델의 의복과 메이크업에서 여성이미지를 유추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3세대 페미니즘의 특성을 규명하고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패션사진에 나타난 페미니즘 여성이미지를 연구하기 위해 세 가지 시각에서 페미니즘 여성성을 관찰하고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현 시대 대표적인 패션작가를 선택하고 그들의 패션사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페미니즘의 표현 특성과 여성이미지를 고찰하였다.

3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미지’, ‘다면적인 여성이미지’, ‘다문화적 여성이미지’, ‘퀴어 여성이미지’ 등 4가지로 귀납할 수 있는데, 첫째,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미지는 정숙한 여성과 퇴폐적인 여성의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해체하고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탈피하여 권력의 주체로써 여성의 해방, 권리를 표현했다. 둘째, 다면적인 여성이미지는 오랫동안 여성의 특질로 여겨왔던 단일화된 여성이미지를 해체하고 양성적인 이미지 혹은 무성의 과기스러운 이미지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상을 표현하였다. 셋째, 다문화적 여성이미지는 유색인종 및 타 문화의 역사적 열등감을 타파하고 이중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주류와 비주류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차이를 완화시켜 주체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였다. 넷째는 퀴어 여성이미지이며 고전적인 젠더 개념을 전복하여 능동적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 정체성을 추구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은 개별적 여성성에 주목하여 특수성을 수용하고, 우월과 열등, 정상과 비정상,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항대립을 타파하였으며 다양한 여성 이미지를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해방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패션사진에 나타난 여성이미지는 페미니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러한 여성이미지는 여러 사회적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 패션사진과 페미니즘은 패션과 함께 여성의 권리, 사회 문화적 사상의 변화를 공유하며,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패션사진을 통한 여성이미지 표현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페미니즘 시각으로 여성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기초자료 적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일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References

- All tomorrow's Parties. (2009, June).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12, from <http://i.mdl.net/i/db/2009/6/7780/7780-800w.jpg>
- Arnold, R.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Image and morality in the 20th centur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Bang, H. J. (2001). Study on feminism and power of age of digital. *Journal of Korea Women's Research Institute*, 4, 51-76.
- Billinghurst, J. (2005). *Temptress : from the original bad girls to women on top* (K. Y. Suk, Trans.). Seoul: Imago.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Butler, J. (2008). *Gender trouble* (H. J. Jo, Trans.). Seoul: Munhak.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Champagne Furs. (2008, July).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33607/632a17c53ed\\_9a69bc96f/large\\_640x](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33607/632a17c53ed_9a69bc96f/large_640x)
- Champagne Furs. (2008, July).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33610/5c23729415f90\\_254861f/large\\_640x](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33610/5c23729415f90_254861f/large_640x)
- Caroline & Minna, T. (1989). *Women & Fashion*, A New book.
- Cho, H. W. (2006). Woman and difference: Woman, women, pluralism of women concep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0(3), 103-125.
- Chon, H. E. (2011). Agencies after the modern subject: Judith Butler's agency theory. *Feminist Studied in English Literature*, 19(2), 153-191.
- Hong, J. P. (1999). *Study on the tendency and expression of fashion photography around the change of the ti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 Hooks, B. (2002).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J. E. Park, Trans.) Seoul: Bak..(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In a Poetic Mood. (2009, April).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82843/caf821cf4b4c15a\\_79699/large\\_640x](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82843/caf821cf4b4c15a_79699/large_640x)
- In Grade Stile. (2003, March).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211336/d3486224af\\_928b1069f0/large\\_640x](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211336/d3486224af_928b1069f0/large_640x)
- Kim, J. Y. (2003). *The feminity of the third wave feminism expressed in the girl power costu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J. (2011). Cyborg feminism expressed in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1), 89-103.
- Lee, J. H. (2005). *From liberal feminism to third feminism*. Literary criticism, 19.
- Lee, J. H., & Yang, S. H. (2007). A study on the sexualit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the femin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10), 11-23.



- Lorber, J. (2005). *Gender inequality: Feminist theories and politics* (S. H. Im, H. L. Im, & G. S. Jung, Trans.). Seoul: Ilsin.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MeiselPic. (2009, December).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i.mdel.net/i/db/2009/12/14559/14559-800w-1.jpg>
- Millett, K. (2009). *Sexual politics* (J. Y. Kim, Trans.). Seoul: Ewho.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Nam, K. T. (2004). Gender displays represented in Korean TV advertising.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6(2), 7-47.
- Naomi Campbell. (2000, November).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peter.lindbergh.free.fr/giflind/72603\\_img075\\_122\\_1095lo.jpg](http://peter.lindbergh.free.fr/giflind/72603_img075_122_1095lo.jpg)
- Pretty Alien. (2000, March).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peter.lindbergh.free.fr/giflind/blk2-033-Amber\\_Valletta-Portfolio29-phPeterLindbergh.jpg](http://peter.lindbergh.free.fr/giflind/blk2-033-Amber_Valletta-Portfolio29-phPeterLindbergh.jpg)
- Serviced. (2007, August).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36.media.tumblr.com/tumblr\\_kz3k4gAXs51qawxlg01\\_1280.jpg](http://36.media.tumblr.com/tumblr_kz3k4gAXs51qawxlg01_1280.jpg)
- Shy Shy, Hush Hush. (2009, October).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164745/ea5c66105a139f978310/large\\_640x](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164745/ea5c66105a139f978310/large_640x)
- Sin, S. O. (1997). The feminism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The logic of sex and gender' on feminism.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1), 218-230.
- Super mods enter rehab. (2007, July).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www.artandcommerce.com/Doc/AAC/Media/TR1\\_COMP/e4/2c/27/49/AAC196904.jpg](http://www.artandcommerce.com/Doc/AAC/Media/TR1_COMP/e4/2c/27/49/AAC196904.jpg)
- Tamagne, F. (2007). *Mauvais genre? Une histoire des representations de l'homosexualit* (S. B. Lee, Trans.). Seoul: Imago.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Tea, H. S. (1999). The 'Body' in black feminist theories.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9(1), 209-230.
- Three women. (2010, February). *Italia Vogue*. Retrieved April 1, 2007, From [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206592/dd296a46b94\\_b14f92513/large\\_640x](https://myfdb-main.s3.amazonaws.com/image/tear_sheet/206592/dd296a46b94_b14f92513/large_640x)
- Tong, R. (2009).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2nd edition. Westview Press.

(Received 16 July 2014; 1st Revised 25 August 2014;  
2nd Revised 8 December 2014; 3rd Revised 27 January 2015;  
Accepted 23 February 2015)